

# 거주지대에 따른 농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 -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중심으로 -

김 인 숙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Quality of Life of Korean Farm Households Across Residential Areas

Kim, In - 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Quality of Life (QOL) of Korean farm households and examine the impa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QOL across residential areas. The data from 760 farm housewives were analyzed using means, Pearson's correlation, regressi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general level of QOL of farm households was low. More specifically, among the three subcategories of QOL, the score for satisfaction in community life (SCL) was the highest and the score for satisfaction in home life (SHL) was the lowest. The score for the level of living in home life (LLHL) and SCL were high in the urban area and the score for the SHL was low in the mountainous area.

2. The significantly influenced variables for the three subcategories of QOL were different in each residential areas. But it was common that the LLHL in the four residential areas was significantly determined by monetary asset and home management ability and the SHL was significantly determined by monetary asset in the three residential areas except the mountainous area.

**Key Word** : QOL, Level of Living, Life Satisfaction Level, Farm Households, Residential Area.

## I. 서론

지난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93 국민 1인당 GNP는 7,670\$ ('91년에는 6,489\$)을 넘어서는 등 매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국가전체의 성장에 힘입어서 우리농촌 역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공업화 정책에 따른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우리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화 되었고, 점차 정책적 관심도 줄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의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한 중에 지난해에는 UR협상의 타결로 향후 농림수산물의 전면적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도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농촌의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촌은 국가의 장기 발전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일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

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의 질은 매우 중요한 관심과제일 수 있고, 현재의 실태파악과 수준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역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농가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부족과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더욱이 농가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시에도 농가 및 거주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농가의 생활의 질에 접근을 시도한 연구자의 선행연구(1993)에 이은 후속 연구로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농촌지역을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의 4개 지대로 나누는 다음, 각 지대에 거주하는 농가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 이질적 집단으로 보고 각 지대별로 거주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각종 복지사업 수행시 구체적인 내용결정과 차별적인 시행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전반에 걸친 공통적인 경향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수혜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sup>1)</sup>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생활의 질을 생활수준과 이에 따른 생활만족수준의 두 하위범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생활수준은 가정 생활수준과 지역사회 생활수준으로 나누고 생활만족수준은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다음, 그 수준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각 유형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 때 지역사회 생활수준은 대상가구별로 자료를 수집한 다른 3개 하위범주와는 달리 같은 지역 거

주민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수준제시에만 사용하였고, 실제 유형구분 시에는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농가유형별 생활의 질 하위범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중 중간지대를 기준으로 하여 본 거주지대 변수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농가를 동일집단으로 한 접근에서 가정 생활수준에는 거주지대의 가변수인 도시근교 지대변수가,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는 산간지대와 도시근교 지대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생활만족수준을 기준으로 이질화된 세부집단으로 농가유형을 구분한 결과에서는 평야지대 거주가구가 생활전반 만족형에 많이 속하고, 생활전반 불만족형에는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거주가구가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특성변수를 밝히는 로짓분석 결과 거주지가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가 아닐 때 가정 생활만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중간지대에 비해서 산간지대나 도시근교 지대에 거주할 때 지역사회 생활만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거주지대 변수는 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가 대상의 복지사업, 특히 가정생활 중심의 생활개선사업 수행 시에 지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거주지대별로 해당가구의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을 측정해 보고, 아울러 각 지대별로 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도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복지사업 시행시 수혜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내용 및 지도방법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집

1) 본 연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결과에 따라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인숙(1993)을 참조할 것.

방법 및 조사대상은 전국 농촌지역을 크게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로 나누고, 다단계 층화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9개도 24개 시군에서 48개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농촌가구 900호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1992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조사대상자 자신이 가구주의 직업을 농가로 분류한 가구 760호분을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생활의 질의 하위범주로 설정한 가정 생활수준 및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의 3가지가 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설정하였던 지역사회 생활수준은 개별농가의 특성이 아닌, 조사농가의 거주마을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므로 지대별로 거주하는 개별농가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생활의 질 수준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가정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건강생활면(질병예방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작년 1년간의 가족병상일수,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 등 3문항), 주거생활면(주거의 밀집도, 주택 보유시설 등 2문항), 가사작업면(부엌시설 상태, 가사편의기구 보유정도 등 2문항), 경제생활면(연간 지출생활비 정도, 연간 저축액 등 2문항), 가족여가생활면(1일 자유시간 정도, 가족여가생활 상태 등 2문항)의 5개 영역 11개 문항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1점, 가장 좋은 상태를 4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였으며, 이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가정생활만족수준을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지역사회 생활상태를 묻는 17개 문항에 대하여 역시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각 문항별 응답값의 합을 생활의 질의 하위범주별 수준으로 하였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하여 크론바하 계수(Cronbach Coefficient Alpha)로 검증한 결과 각 척도별로 0.64~0.77 사이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존의 관련연구들에서 각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생활의 질 또는 결혼/생활만족도 연구들에서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가구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농가의 경우에서 검증해 보고자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수로는 가정관리자의 개인적 사항 중 변수간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 남편의 연령 및 주부의 연령과 역시 이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결혼지속기간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이 중 주부연령을 택하였고, 이들 주부의 학력수준과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수와 자녀수변수를 함께 채택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변수로는 많은 농가가 재산이 많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재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고 보여져 이를 반영한 실물자산과 현금성 성격이 강한 화폐자산을, 여기에서 화폐소득인 농가소득을 합하여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관리능력은 생활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있어<sup>2)</sup> 본 연구에서도 가정관리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사전연구들을 통해서 척도에 대한 타당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酒井식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는데, 먼저 각 지대별로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값을 구하였고, 이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실시하여 각 지대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다공선성의 위험을 확인한 다음, 각 지대별로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이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응답자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먼저 주부연령은 50대 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 40대의 순이며 평균연령은 46.7세였다. 조사가구 주부의 학력수준은 국졸이 60%를 넘어 가장 많고, 고졸학력은 전체대상농가의 약 1/4 수준이었

다. 평균 가족수는 4.9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며, 평균 자녀수는 2.5명이었다. 경제적 변수인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 동산, 가축과 귀금속을 포함하는 실물자산의 수준은 5,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40.4%로 나타났고, 다음이 1,000~3,000만원 미만가구로 25.0% 였다. 또한 적금, 정기예금, 계통 등과 같이 현금전환이 용이한 화폐자산은 5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1.8%로 가장 많았고, 평균소득 수준은 8,243.8천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가정관리능력은 전체조사 가구의 71%나 되는 가구들이 100점 만점환산점수 46~70점에 해당하는 집단이었는데, 이들 가구의 평균점은 170.7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56.9점 정도가 되어 절대적으로는 중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각 가구변수별로 살펴보면 주부연령은 중간지대가 48세로 가장 높고, 다음이 평야지대와 산간지대가 47세, 그리고 도시근교지대 주부는 43세로 가장 젊었으며, 주부학력은 지대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가족수는 평야지대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 중간지대의 순이었으며, 자녀수는 평야지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으면서 역시 가족수와 같은 순서였다. 경제적 변수로는 실물자산은 도시근교지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순이며, 화폐자산은 도시근교지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평야지대, 산간지대, 중간지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가소득 역시 도시근교지대가 962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평야지대 880만원이었는데,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난 산간지대는 697만원, 중간지대는 621만에 불과하여 그 차액은 매우 큰 편이었다.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은 도시근교지대가 17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산간지대, 평야지대, 중간지대의 순이었는데, 이중 중간지대만이 165점으로 전체농가 평균값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각 지대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을 정리

해 보면 평야지대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체로 주부연령이 많은 편이고, 가족의 크기가 큰 편이며, 경제적 수준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은 중간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간지대의 가구는 주부연령이 높으면서 가구의 크기 및 자녀수는 적은 편이며, 경제적 수준은 4개 지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주부의 가정관리능력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간지대의 가구는 대체로 전체농가의 평균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도시근교지대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는 주부의 연령이 가장 젊고, 가구의 크기 역시 그다지 크지 않으며, 경제적 수준은 4개 지대 중 가장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주부의 가정관리능력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 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

표 1에서는 각 지대별로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sup>2)</sup> 을 살펴 보았다. 전반적인 수준을 보면 지역 사회 생활만족수준이 59점으로 가장 높고, 가정 생활만족수준이 47점 정도로 가장 낮았으며, 이에 비해서 가정 생활수준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기서 농촌가정에서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얻는 만족감보다는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 만족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는 실제의 생활조건에 비해서 다소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대별로는 가정 생활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도시근교 지대에서 각각 63점과 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 생활수준은 도시근교 지대 다음으로 평야지대가 높았고, 중간지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DMR 검증결과 도시근교지대, 평야지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의 세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가정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다른 세 지대에 비해 산간지대의 수준이 월등하게 낮았고, DMR 검증결과에서도 다른 세지대와는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간지대가 다른지대에 비하여 가

2) 김인숙 (1993)의 결과에서 설명되고 있음.

3) 각 하위범주별 수준의 비교를 위하여 실제값을 표준값으로 환산하였으며, 그 공식은  $((\text{실제값} - \text{가능최저값}) / (\text{가능최고값} - \text{가능최저값})) * 100$ 임.

정 생활수준과 가정 생활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타지역과의 비연계성이 두드러지면서 TV등을 통해서 보는 도시가구 등과의 상대적 비교가 현실로 반영되기 어려운 점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며, 이와 같은 해석은 도시와의 연계성이 가장 두드러진 도시근교지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을 보면 가정 생활수준과 가정 생활만족수준에서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 산간지대가 도시근교지대와 함께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가정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에서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역사회생활에서는 산간지대의 경우 타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농촌지역이 그 준거집단이 되므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지며, 도시근교지대의 경우는 도시 지역이 준거집단이 되므로 상대적 불만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도시의 문화생활환경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생활의 질의 하위범주별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세지대에 비해 도시근교 지대 가구의 수준이 비교적 높음에다 전체농가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평야지대는 전체농가 수준에 비해 가정 생활만족수준이 높으며,

산간지대는 전체농가 수준에 비해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합적 성격이 강한 지역인 중간지대에서는 생활의 질 3개 하위범주별 수준 모두에서 전체농가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농촌생활에서는 지역적 특성 또는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거주하는 농가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 3. 지대별 거주가구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가의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분석에 사용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다음의 표 2이다. 여기서 보면 각 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정적 또는 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 중 주부연령과 학력변수가 부적으로( $r=-.41$ ), 가족수와 자녀수( $r=.59$ ) 및 실물자산과 화폐자산( $r=.42$ )은 정적으로 다소 높은 계수를 보였으나, 그 외에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변수간의 다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변수를 본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변수간 상관이 0.5를 넘은 가족수와 자녀수는 각 지대별 분석에서는 둘 중 보다 의미있는 변수를 택하였다. 그리고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두차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단계법(step-wise)으로 각 수준

〈표 1〉 지대별 생활의 질의 하위범주별 수준

구 분	Mean (N)		
	가정 생활수준	가정 생활 만족수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
전 체	54.49(730)	46.89(754)	59.46(757)
평야지대	55.11(189) B	49.39(196) A	57.61(198) B
중간지대	50.79(197) C	46.61(204) A	57.94(204) B
산간지대	52.03(205) C	43.88(212) B	61.32(211) A
도시근교	63.07(139) A	48.32(142) A	61.44(145) A
R <sup>2</sup>	21.2593***	6.2075***	11.7815***

#1. \*\*\* P < 0.001 \*\* P < 0.01 \* P < 0.05

#2. 영문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DMR)의 결과임 (P < 0.05).

〈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X <sub>1</sub>	X <sub>2</sub>	X <sub>3</sub>	X <sub>4</sub>	X <sub>5</sub>	X <sub>6</sub>	X <sub>7</sub>	X <sub>8</sub>
	주부 연령	주부 학력	가족 수	자녀 수	실물 자산	화폐 자산	농가 소득	가정관 리능력
X <sub>1</sub>	1.00							
X <sub>2</sub>	-.41**	1.00						
X <sub>3</sub>	.05	-.07*	1.00					
X <sub>4</sub>	.08*	.05**	.59**	1.00				
X <sub>5</sub>	-.07*	.05**	.13**	.10**	1.00			
X <sub>6</sub>	-.23**	.09**	.15**	.12**	.42**	1.00		
X <sub>7</sub>	-.14**	.06	.04	.03	.16**	.26**	1.00	
X <sub>8</sub>	-.23**	.09**	.16**	.11**	.18**	.27**	.12**	1.00

# \*\* P < 0.01 \* P < 0.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 이중 표준화된 회귀계수 ( $\beta$ )가 0.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한 다음, 이들 변수만으로 다시 동시투입법(enter)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영향정도를 살폈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투입법의 결과만을 표로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농가를 동일집단으로 보고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영향력을 규명한 것이 다음 표 3이다. 가정 생활수준에는 화폐자산( $\beta=.333$ )의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실물자산( $\beta=.213$ )과 가정관리능력( $\beta=.180$ ) 변수, 그리고 농가소득( $\beta=.156$ )의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값이 클수록 가정 생활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주부연령변수는 부적 효과( $\beta=-.072$ )를 보이고 있어 젊은 주부의 가정일수록 가정 생활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 생활만족수준에는 실물자산( $\beta=.238$ ), 화폐자산( $\beta=.231$ )과 가정관리능력( $\beta=.134$ )의 순으로 정적 효과를 보였고, 그리고 자녀수는 부적효과( $\beta=-.098$ )를 보여 실물자산과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은 가정일수록 가정 생활만족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는 가정관리능력( $\beta=.167$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이 자녀수가 정적효과( $\beta=.084$ )를 갖고, 실물자산은 부적효과( $\beta=-.089$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실물자산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생활에서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농가생활에서는 가정관리능력이 공통된 영향변수로서 전반적인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관리능력의 향상이 우선되는 과제라고 여겨진다. 또한 가정생활면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주부가 젊을수록 가정 생활조건의 개선에 적극적이고, 자녀수가 적으면 가정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녀수와 실물자산 변수는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서 반대되는 효과를 갖는 변수라는 점에서 농가의 경우 가정생활면과 지역사회생활면의 개선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

책실시에 앞서 어느 부문의 향상을 지향한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변수의 영향정도의 차이를 보면 가정 생활만족수준에서는 자녀수와 실물자산의 회귀계수값(B)이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서보다 크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정 생활만족수준의 감소정도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의 증가정도보다 크며,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가정 생활만족수준의 증가정도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의 감소정도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두 변수 모두 가정 생활만족수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전체농가의 관련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 $\beta$ 계수)

독립\종속	가정생활수준	가정생활만족수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
주 부 연 령	-.072*		
자 녀 수		-0.98*[-.471]	0.084*(0.385)
실 물 자 산	0.213***	0.238***[1.137]	-.089*[-.404]
화 폐 자 산	0.333***	0.231***	
농 가 소 득	0.156***		
가정관리능력	0.180***	0.2007***	0.167***
R <sup>2</sup>	0.3990***	0.2007***	0.0514***

#1. \*\*\* P < 0.001 \*\* P < 0.01 \* P < 0.05  
#2. [ ]는 회귀계수(B)를 제시한 것임.

표 4에서 표 7은 각 지대별로 거주가구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정리하였다. 먼저 표 4에서 평야지대 거주가구의 가정 생활수준을 보면 전체농가의 가정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연령 및 실물자산과 농가소득 변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화폐자산( $\beta=.533$ )과 가정관리능력( $\beta=.249$ ) 변수의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가정 생활만족수준에는 화폐자산( $\beta=.449$ )만이 유일한 영향변수였다. 이와 같은 화폐자산의 영향은 산간지대를 제외한 다른 세지대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가에서도 화폐위주의 생활방식을 영위하는 도시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환금성이 가정생활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지며, 예전과 같은 현물 위주의 실물자산이 농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는 가족수가 부적효과 ( $\beta = -.181$ )를 보여서 가족수가 적을수록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었는데, 평야지대의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4개 지대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평야지대의 가구규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었다. 가정관리능력 변수는 가정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만족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정생활에서의 물리적인 조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도 정적효과를 갖는 유일한 변수로서 전체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 향상에 우선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 평야지대에서의 관련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β계수)

독립\종속	가정생활수준	가정생활만족수준	지역사회생활만족수준
가족수			-.181**
화폐자산	0.533***	0.449***	
가정관리능력	0.249***		0.183**
R <sup>2</sup>	0.4575***	0.1999***	0.0809**

# \*\*\* P < 0.001 \*\* P < 0.01 \* P < 0.05

다음의 표 5에서 중간지대 거주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가정 생활수준에는 화폐자산 ( $\beta = .418$ )과 가정관리능력 ( $\beta = .23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간지대 거주 가구에서는 화폐자산이 많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을수록 가정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가정 생활만족수준에는 이들 변수 외에 주부연령 변수 ( $\beta = .204$ )가 정적 효과를 보여 주부의 연령이 부적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전체농가의 경우와는 달리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정생활면의 향상에는 역시 화폐자산과 가정관리능력 변수가 전체농가와 평야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 $\beta = .253$ ), 주부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 $\beta = .179$ ), 가정관리능력이 높을수록 ( $\beta = .157$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다른 지대와는 달리 중간지대의 경우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부연령 및 학력과 가정관리능력 변수가 주부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라는 점에서 생활의 질의 3개 하위범주별 수준이 전체농가의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난 중간지대에서는 주부의 경험 및 자질 향상이 생활의 질 수준향상을 위해 보다 우선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 중간지대에서의 관련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β계수)

독립\종속	가정생활수준	가정생활만족수준	지역사회생활만족수준
주부연령		0.204**	
주부학력			0.179*
자녀수			0.253***
화폐자산	0.418***	0.354***	
가정관리능력	0.231***	0.182**	0.157*
R <sup>2</sup>	0.2929***	0.1755***	0.1343***

#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6에서 산간지대 거주가구의 가정 생활수준을 보면 다른 지대와는 달리 실물자산 ( $\beta = .285$ )과 화폐자산 ( $\beta = .238$ ) 및 농가소득 ( $\beta = .206$ )과 같은 경제적 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정 생활조건이 가장 민감하게 변화될 수 있는 지대임을 알 수 있는데, 산간지대의 가정 생활수준이 다른 지대에 비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해 있는 점과 관련지어 볼 때 경제적 여건이 가장 불리한 지역이라고 여겨지므로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가장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정 생활만족수준은 전체농가의 경우와 같이 자녀수가 부적 효과 ( $\beta = -.186$ )를 보이고 있고, 가정관리능력 ( $\beta = .321$ )이 비교적 영향력이 큰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간지대의 경우 화폐자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른 지대와는 달리 실물자산 ( $\beta = .234$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은 지리적 특성상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화폐의 유동 역시 원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전통적 사고의 고수로 화폐보다는 현물보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실제

생활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는 자녀수 변수 ( $\beta=.164$ )만이 유일하게 의미있는 변수였는데, 전반적으로 산간지대 거주가구는 생활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전체농가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서 상반된 효과를 보이는 자녀수는 많을수록 주거의 불비함과 시설의 불편함 때문에 가정 생활의 불만을 야기시키지만, 그 반면 협동 및 안전성이 요구되는 지역사회생활에서는 동질감 또는 일체감을 불러 일으켜 만족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6〉 산간지대에서의 관련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 $\beta$ 계수)

독립\종속	가정생활 수 준	가정생활 만족수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
자녀수		-0.186**	0.164*
실물자산	0.285***	0.234**	
화폐자산	0.238***		
농가소득	0.206**		
가정관리능력	0.179**	0.321***	
$R^2$	0.3664***	0.2522***	0.0469

# \*\*\*  $P < 0.001$  \*\*  $P < 0.01$  \*  $P < 0.05$

다음의 표 7에서는 도시근교지대 거주가구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가정 생활수준에서는 경제적 변수 중 화폐자산 ( $\beta=.427$ )과 가정관리능력 ( $\beta=.169$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생활만족수준에는 화폐자산 ( $\beta=.304$ )이 유일한 영향변수였으며, 특이하게 화폐자산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는 부적효과 ( $\beta=-.238$ )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지대에서는 전혀 유의하지 않은 변수였던 점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화폐자산은 도시근교 지대의 농가는 '재산(실물자산)이 많은 빈자(貧者)'로 인식되던 전통적 농가와 달리 도시지역 생활방식에 쉽게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가정생활면을 좋게 하는 반면, 그 보유정도가 도시생활로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사회생

활에 불만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표 7〉 도시근교지대에서의 관련변수간 회귀분석 결과 ( $\beta$ 계수)

독립\종속	가정생활 수 준	가정생활 만족수준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
화폐자산	0.427***	0.304***	-.238**
가정관리능력	0.169*		
$R^2$	0.3050***	0.1390***	0.0606*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 특히 농가주민의 생활의 질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시도으로써, 연구자의 선행연구(1993) 결과 '지대변수'가 생활의 질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후속연구로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용이한 농가 구분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지별로 거주농가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로 농촌 및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또는 농촌생활 개선 사업의 수행 시 획일적이 아닌,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연구목적 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가의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을 100점 만점 표준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본 결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5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가정 생활수준, 가정 생활만족수준이었는데, 이중 가정 생활만족수준은 46.9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지대별로 거주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을 보면 가정 생활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도시근교지대가 가장 높았고, 가정 생활만족수준은 산간지대의 수준이 다른 지대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게 나타났다.

3. 산간지대는 가정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은 다른 지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난 반면, 지



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근교 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대에서는 가정 생활수준에 비해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근교 지대에서만 가정 생활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농가의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가정 생활수준에서는 평야지대, 중간지대, 도시근교지대에서 모두 화폐자산과 가정관리능력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산간지대는 그 외에 실물자산과 농가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가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나 전체농가의 경우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부연령 변수는 지대별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5. 가정 생활만족수준에서도 산간지대를 제외한 다른 3개 지대에서 화폐자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각각 주부연령과 가정관리능력, 자녀수와 가정관리능력이 유의하였고, 또한 산간지대에서는 실물자산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서는 평야지대에서 가족수가 부적영향을 미치며, 중간지대에서는 주부학력과 자녀수 변수가 유의하였고, 이 두지대에서는 가정관리능력이 역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간지대에서는 자녀수 변수만이, 도시근교 지대에서는 부적효과를 보이는 화폐자산 변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농가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생활의 질 수준은 여전히 낮고,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 비해서도 가정 생활만족수준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가정 생활수준에 비해서도 만족수준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이는 점에서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도시 가구와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 열등감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농가생활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가구 수준으로 개선함을 목표로 하여 가정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의식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들이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대별로 구분한 결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거주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를 거대한 동질집단으로 보고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지방화 시대에는 복지대상을 세분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 되며, 세부집단별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는데, 이를 위한 복지대상의 구분기준으로는 '거주지대'가 가장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가의 생활의 질 하위범주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평야지대, 중간지대, 도시근교지대에서 모두 화폐자산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있어 농가의 경우 환금성이 강한 화폐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가정 생활만족수준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의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관리능력 역시 가정과 지역사회 생활 모두에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능력의 배양이 만족스러운 생활영위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정책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각 지대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화폐자산과 가정관리능력을 우선 향상시키면서, 지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향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넷째, 자녀수와 화폐자산은 산간지대와 도시근교지대에서 각각 가정 생활만족수준과 지역사회 생활만족수준에 반대되는 효과를 갖는 변수인데, 이렇듯 상반되는 변수의 효과를 감안할 때, 각종 사업수행시 가정생활면과 지역사회생활면 중 어느 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뚜렷해야 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기준에 따라 농가를 구분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복지정책수립시 유용한 자료가 되고, 특히 거주지대 변수가 지방화시대에서 다른 기준에 비해 적용이 용이한 기

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다양한 수혜대상자의 특성에 보다 부합되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수가 주로 가정생활 관련변수였다는 점에서 생활의 질 하위 범주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적합한 변수의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아울러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범중 (1994), SPSS/PC+ 사용법과 통계분석기법 해설, 학현사.
- 김인숙 (1993), "농가의 생활수준과 생활만족수준 및 이에 따른 농가의 유형분석 -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김진호·최은숙 (1994), "생활의 질로 구분한 농가가계의 유형과 결정요인", 소비자연구 제 5권 2호, 한국소비자학회.
- 김인숙·최은숙 (1993),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 생활의 질에의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 2권, 한국농촌생활과학회.
- 서종혁 (1993), "농업여건의 변화와 정책전환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논문.